

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이정림*·김형태*·김선영*·윤미은**·천성수***†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삼육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Psychosocial Stress, Expected Drinking Effects and Reason for Reducing Alcohol Consumption on Problem Drinking

Jung-rim Lee*·Hyung-tae Kim*·Sun-young Kim*·Mi-eun Yun**·Sung-soo Chu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ahmyook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Sahmyoo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thesis intends to find out the extent of drinking problem which is caused by students' psychosocial stress, expected alcohol effects and problem drinker drinking as well as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 2014 to October 31, 2014 with the target of 466 students (66.6%), who are currently drinking, out of 700 students over the age of 16 and enrolled in 36 universities located in the whole country. Thi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rogram SPSS21.

Results: Age, gender, and the school district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rinking problem compared to other general characteristics played the role of control variables. It was found that psychosocial stress does not affect the drinking problem. The self-reward and human-relation factors included in the expected drinking effect were revealed to influence significantly on the problem and the life and health related factors included in the reason of drinking refrain were also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at problem. The degree of F is 15.665 and the degree of explanatory is 23.6%.

Conclusions: Problem drinker in college and enhance the culture and health education policy is necessary to reduce college student drinking effects expected.

접수일 : 2015년 3월 20일, 수정일 : 2015년 4월 20일, 채택일 : 2015년 4월 27일

교신저자 : 천성수(139-74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화랑로 815)

Tel: 02-3399-1668 FAX: 02-3399-1640 E-mail: chss97@syu.ac.kr

Key words: Psychosocial Stress, Drinking Problem, AUDIT

I. 서론

대학생의 음주는 대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로 적당한 음주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활유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개인이나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연간 음주율은 94.4%로 성인의 연간 음주율 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자리에서 4-5잔 이상을 마시는 폭음률은 71.3%, 이러한 위험음주를 2주 동안 1-2회 경험한 수시 폭음자가 42.3%, 3회 이상 경험한 상습 폭음자가 28.9%인 것으로 나타났다(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2010).

대학생의 음주실태는 사회적 기능손상, 행동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등 음주 문제와 연관되며, 음주를 많이 하는 대학생일수록 음주문제가 높게 나타난다(이미라, 2012). 반면, 정원철(2006)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음주피해에 대한 측정 결과 남학생의 53%와 여학생의 39%가 음주에 따른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음주를 많이 할수록 음주문제를 일으키며, 많은 대학생이 음주로 인한 피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시기는 취업준비, 학업문제, 경제문제와 대인관계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오예슬과 오은환, 2013),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문제음주로 나타날 수 있다(서경현과 양승애, 2011). Nakajima 등(2013)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들은 알코올의 심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Kuther와 Higgins-D'Alessandro(2003)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음주는 긍정적인 음주결과기대와 낮은 음주거절효능감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음주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대학생의 음주행동을 예측하는 데 사회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설명변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우정, 긴장감 감소,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고 긍정적 감정을 향상시키는 등의 음주의 긍정적 기대는 알코올 사용과 강한 연관이 있다(Kuntsche 등, 2004; Urban 등, 2008; 천성수 등, 2011). 특히 문제음주자는 술을 마시는 이유로 “인간관계를 원활히 한다”는 것(92.7%)과 “개인적으로 술을 즐긴다”는 이유(84.3%)에 대다수가 동의하였으며, 문제음주자와 정상음주자의 61.3%가 “술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준다”고 인식하였다(천성수 등, 2011). 또한 홍종필(1989)은 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결과 기대가 대학생의 과도한 음주 및 문제성 음주를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최명숙 등(2002)은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거절의 자기효능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예측변수로 나타나 음주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바꾸는 교육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은진(2000)은 대학생 음주문제 예방대책으로 음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대학생 대상의 절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고 음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음주의 부정적 효과를 인지하여 음주를 자제하는 요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음주 자제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음주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교육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문제음주(이은숙과 봉은주, 2014; 김혜선, 2013; Kuntsche 등, 2004), 가족의 경제적 특성(배명수와 차승은, 2014)과 문제음주, 즉 가족음주력 요인과 문제음주의 관련성이 주로 연구되었고, 개인의 심리적요인은 우울, 자살생각(이은숙과 봉은주, 2014; 김지훈 등, 2013; Gonzalez 등, 2009), 성격특성(손정락과

김희영, 2013; King 등, 2003)과 문제음주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 정도이다. 이 또한 음주와 연관이 적은 순수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였고, 음주와 관련 있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안영과 정민(2003)은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물학적 요인인 음주문제를 지닌 가족 구성원의 유무보다는 심리적인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대학생 음주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음주와 관련 있는 심리적 요인들 중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가 문제음주에 끼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위치하는 2, 3, 4년제 대학교 36곳에서 재학 중인 만 16세 이상의 대학생 700명 중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466명(66.6%)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 비율은 여학생 280명(60.1%), 남학생 186명(39.9%)이었으며,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조사원이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교지역,

동거구분, 종교,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폐쇄형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평가 측정도구로 유용성을 인정받은 단축형 PWI-SF(psychologic well-being index)를 이용하였다. 이는 Goldberg의 GHQ-60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장세진(2005)이 개발한 18문항의 단축형 PWI-SF로 정상인의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PWI-SF는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3-2-1-0의 점수를 주었다. 개발자들은 0-8점 까지를 건강군, 9-26점을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0.779 이었다.

3) 음주효과기대

음주효과기대의 측정은 하버드대학교가 미국 대학생 음주실태를 비교하고, 알코올 정책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음주효과기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음주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긴장을 풀고 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보상하기 위하여' 등의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중요하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까지의 Likert 척도로 5-4-3-2-1의 점수를 주었다. 하위요인 분석을 통해 자아보상 및 대인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아보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0.880, 대인관계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0.815이었다.

4) 음주자제이유

음주자제이유의 측정은 Wechsler 등(1994)이 미국 대학생 음주실태와, 알코올 정책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음주자제이유 척도를 사용하였다(Wechsler 등, 1994; 천성

수 등, 2005). 이는 음주를 전혀 하지 않거나 적당히 마시는 이유의 중요정도를 평가한 것으로서 '음주는 나의 가치관에 위배된다', '내 건강에 좋지 않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중요하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Likert 척도로 4-3-2-1의 점수를 주었다. 음주자제이유의 하위요인으로 생활관련요인, 가치관 관련요인, 건강관련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생활관련 요인은 '운전을 한다', '내 친구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치관 관련요인은 '음주는 나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음주는 나의 종교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건강 관련요인으로는 '중독이 될까봐 두렵다', '내 건강에 좋지 않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생활관련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0.889, 가치관 관련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0.675, 건강관련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0.787 이었다.

5) 문제음주

본 연구에서는 음주량, 음주빈도, 폭음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이하 AUDIT)를 사용하였다(Babor 등, 2001). AUDIT는 위험한 알코올 사용, 의존증상, 유해한 알코올 사용의 세 영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알코올 사용장애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파악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 문제음주 차이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일반적 특

성 중 종속변수인 문제음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대별 대상자의 분포는 17-19세 28.8%, 20-23세 62.4%, 24세 이상 8.8%로 나타났다. 남녀 비율은 여학생 60.1%, 남학생 39.9%였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경기지역 52.4%, 기타지역 28.1%, 서울지역 19.5%로 나타났다. 동거는 가족과 함께 사는 응답자 66.5%, 혼자 사는 응답자 17.6%, 친구/지인과 함께 사는 응답자 14.6%, 기타 1.3%였고, 종교는 없음 66.3%, 있음 33.7%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함 54.1%, 보통 33.0%, 건강하지 못함 12.9%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 문제음주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 문제음주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연령대별 간의 비교에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문제음주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17-19세가 20-23세와 24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녀간에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문제음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음주효과기대와 문제음주는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간에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 문제음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 일반적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 문제음주 차이

특성	구분	n (%)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			문제음주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연령	17-19세	134(28.8)	31.7±7.50 ^a			2.6±.80			2.0±.65			8.1±6.06 ^a		
	20-23세	291(62.4)	29.9±6.49 ^b	6.650	0.001	2.8±.82	2.709	0.068	2.1±.60	1.275	0.280	9.0±6.62 ^a	6.943	0.001
	24세이상	41(8.8)	27.7±6.32 ^b			2.9±.74			1.9±.56			12.6±6.78 ^b		
성별	남학생	186(39.9)	28.6±6.90	16.876	0.000	2.9±.77	13.247	0.000	2.0±.56	0.001	0.978	10.5±6.89	14.573	0.000
	여학생	280(60.1)	31.3±6.65			2.7±.82			2.0±.64			8.1±6.55		
학교 지역	서울	91(19.5)	31.3±5.75 ^a			2.7±.70 ^a			2.2±.56 ^a			10.0±7.20 ^a		
	경기	244(52.4)	29.2±6.54 ^b	5.258	0.005	2.9±.83 ^{ab}	4.863	0.008	2.0±.59 ^{ab}	3.456	0.032	9.5±6.66 ^b	4.233	0.015
	기타	131(28.1)	31.3±7.87 ^b			2.6±.83 ^b			1.9±.66 ^b			7.6±6.54 ^b		
동거 구분	독거	82(17.6)	29.0±6.20 ^{ab}			2.8±.80 ^a			2.1±.58			10.4±7.29		
	가족	310(66.5)	31.0±6.88 ^b	4.953	0.002	2.7±.80 ^a	3.769	0.011	2.0±.61	1.769	0.152	8.4±6.64	2.522	0.057
	친구,지인 기타	68(14.6)	28.4±6.95 ^{ab}			3.0±.88 ^a			2.2±.63			10.1±6.62		
종교	없음	309(66.3)	30.0±6.87	1.287	0.257	2.9±.75	13.412	0.000	2.0±.62	9.209	0.003	9.5±6.75	3.194	0.075
	있음	157(33.7)	30.7±6.83			2.6±.88			2.2±.58			8.3±6.80		
건강 상태	건강치못함	60(12.9)	30.6±8.46 ^a			2.7±.88			2.1±.60			9.7±7.23		
	보통	154(33.0)	32.7±6.47 ^b	18.666	0.000	2.7±.82	1.706	0.183	2.1±.59	1.144	0.319	8.4±6.74	1.009	0.365
	건강함	252(54.1)	28.6±6.20 ^c			2.8±.79			2.0±.62			9.3±6.70		

abc: Duncan multiful comparison

M=Mean

연령 평균±표준편차: 20.9±1.94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문제음주는 서울지역이 경기지역과 기타지역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음주효과기대와 음주자제이유는 서울지역이 기타지역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동거구분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가족과 함께 사는 응답자가 기타 장소에 사는 응답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종교여부에 따라서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음주효과기대는 종교 없음이 높았고, 음주자제이유는 종교 있음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라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인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하지 못함, 건강함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 문제음주 간 상관관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 문제음주 간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음주효과기대의 하위요인으로 자아보상요인과 대인관계요인을 분석하였고, 음주자제이유의 하위요인으로 생활관련요인, 가치관관련요인, 건강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음주효과기대 중 자아보상요인과 대인관계요인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이 나타났고, 음주자제이유 중 생활관련요인과도 유의한 음의 상관이 나타났다. 문제음주는 음주효과기대 중 자아보상요인, 대인관계요인과 유의한 양의 상관이 나타났고, 음주자제이유 중 생활관련요인과 유의한 양의 상관, 가치관관련요인, 건강관련요인은 유의한 음의 상관이 나타났다.

<표 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 문제음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사회심리적 스트레스(1)	1						
음주효과기대							
자아보상(2)	-0.168**	1					
대인관계(3)	-0.103**	0.477**	1				
음주자제이유							
생활관련(4)	-0.162**	0.114	0.136**	1			
가치관관련(5)	-0.052	-0.016	-0.150**	0.392**	1		
건강관련(6)	-0.038	-0.125**	-0.019	0.616	0.416**	1	
문제음주(7)	-0.032	0.283**	0.265**	0.211**	-0.092*	-0.126**	1

* p<0.05, ** p<0.01, *** p<0.001

4.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표 3>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문제음주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성별, 학교지역을 통제변수로 하였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효과기대 중 자아보상요인과 대인관계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음주자제이유 중 생활관련요인과 건강관련 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값은 15.665, 설명력은 23.6%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N=466)

	step1			step2		
	β	t	p	β	t	p
일반적 특성						
연령				0.062	1.302	0.194
성별				-0.083	-1.927	0.055
학교지역				-0.085	-1.816	0.070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0.056	1.326	0.185	0.079	1.816	0.070
음주효과기대						
자아보상	0.143	2.924	0.004	0.125	2.550	0.011
대인관계	0.124	2.549	0.011	0.120	2.491	0.013
음주자제이유						
생활관련	0.426	7.590	0.000	0.413	7.431	0.000
가치관관련	-0.100	-2.104	0.036	-0.091	-1.920	0.055
건강관련	-0.324	-5.796	0.000	-0.330	-5.959	0.000
	F value= 20.536*** adj R ² = 0.201			F value= 15.665*** adj R ² = 0.236		

*** p<0.001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 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음주문제 해결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이명준과 조영채(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족과 함께 사는 응답자와 혼자 살거나 친구/지인과 함께 사는 응답자 간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김민경

(2012)은 유대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긴장, 부모의 간섭이나 통제 등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미경과 김인경(2014)은 스트레스와 음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서경현과 양승애(2011)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음주하더라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문제음주군과 알코올중독으로 진단받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스트레스는 특히 문제음주군에서 알코올 사용을 증

가시키는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전진용 등, 2006).

음주효과 기대 중 자아보상요인과 대인관계요인은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자아보상 요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성기(1997)는 알코올의 특성인 “정신의 이완을 통한 여유로움”을 기대하고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음주의 동기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음주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라(2012)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음주상대는 대부분 친구이며 음주를 하는 이유는 모임 및 교제를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음주효과 기대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대한 결과기대에 관한 한소영(2005)의 연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알코올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특히 긴장 완화와 부정적 감소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은 사고 동기 및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미경과 김인경 2014). Urban 등(2008)은 음주의 긍정적인 기대가 부정적인 기대보다 문제음주와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에게 음주의 부정적인 결과를 교육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대인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음주효과 기대는 종교 없음이 높았으며, 음주자제 이유는 종교 있음이 높았다. 노안영과 정민(2003)은 신앙심이 깊을수록 음주문제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각 종교는 음주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는 ‘지나친 음주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의 독특한 규범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중순, 2000; 박경과 최순희, 2012).

생활관련 요인, 가치관관련 요인과 건강관련요인은 음주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생활만족도와 문제음주의 정도는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심리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음주행위 자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박중순, 2000)와 유사하다. 또한, 음주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현재 대학사회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이 관대할수록, 그리고 원치 않는 음주의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음주의 정도가 높다. 즉, 가치관관련요인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음주자제 이유에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관련 요인 또한 음주자제 이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의 영향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지역 소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한 결과이므로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에 관련된 다양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얻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에서 여학생이 60%로 남학생보다 많아 문제음주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효과 기대와 음주자제 이유가 문제음주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문제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건전한 대학문화 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효과기대, 음주자제이유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음주의 영향요인인 자아보상요인과 대인관계 요인에는 유의한 음의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문제음주는 음주효과 기대 중 자아보상요인, 대인관계요인과 유의한 양의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음주의 긍정적인 기대가 부정적인 기대보다 문제음주와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대학생에게 음주의 부정적인 결과를 교육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대인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음주효과 기대는 종교 없음이 높았으며, 음주자제 이유는 종교 있음이 높았다. 생활관련 요인, 가치관관련 요인과 건강관련요인은 음주효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음주자제이유를 강화하여 문제음주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강미경, 김인경. 여대생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4;15(8): 5053-5061.
2. 고유미, 현명호, 박지선. 대학생의 음주억제와 음주행동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2009;14(4):891-909.
3. 김민경.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화포럼 2012;29:34-57.
4. 김용석. 국내의 알코올사용장애 선별도구의 비교를 통한 한국성인의 알코올사용장애에 관한 역학 조사. 한국사회복지학 1999;37:67-88.
5. 김혜선.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의 문제음주, 부모의 문제음주 영향 그리고 공동의존. 사회복지 지연구 2013;44(2):85-108.
6. 남경아. 대학생의 문제음주정도와 사회심리적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 2009;18(4):501-511.
7. 노안영, 정민. 대학생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03;4(1): 5-18.
8. 박경, 최순희. 간호대 여학생의 음주관련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2012;13(1):23-32.
9. 박중순. 대학생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회지 2000;26(4): 393-413.
10. 배명수, 차승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청소년의 위험음주 및 문제음주행동 간의 관련성: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4;19(3), 241-263.
11. 서경현, 양승애. 대학생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처방식으로서 음주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2011; 18(11):331-352.
12. 오예슬, 오은환.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2013;14(1):25-36.
13. 이명준, 조영채. 일부 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수준과 그의 관련요인.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6):2828-2838.
14. 이미라. 대학생의 음주실태와 음주문제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2;13(10): 4619-4628
15. 이영아. 대학생의 음주와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제주도 소재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004;8(1):57-70.
16. 이은숙, 봉은주. 대학생의 음주결과기대, 우울 및 자살생각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호학연구지 2014;20(20):121-128.
17. 이은숙, 봉은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음주결과기대와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 2014;20(3): 392-401.
18. 장세진 외 27명.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산업의학회지 2005; 15(4):297-317
19. 전진용 외 6명. 알코올 사용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2006;45(4):343-348.

20. 정원철.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의 실태와 관련 심리 사회적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2006;58(1): 347-372.
21. 조성기. 우리나라 음주문화 실태와 알코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 중계 1997.
22. 김지훈, 강옥모, 문수영. 중년층의 문제음주가 우울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3). 185-203.
23. 천성수, 손애리. AUDIT척도에 의한 한국대학생의 알코올사용장애 실태 및 원인 분석. *예방의학회지* 2005;38(3):307-314.
24. 천성수, 안보미, 김미경, 손애리. 문제음주자와 정상음주자 간의 음주태도 및 음주문제 인식 차이. *대한보건연구* 2011;37(1):121-130.
25. 천성수, Toben F. Nelson, Easton A. Reid, Henry Wechsler.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의 음주와 폭 음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2011;12(3):29-41.
26. 최명숙, 임미영, 윤영미. 한국 대학생의 음주행위 예측모형의 성별 비교분석. *보건연구정보센터* 2002.
27. 최은진. 대학생 음주문제와 예방대책. *보건복지포럼* 2000;44(5):75-83.
28. 탁영란, 안지연. 음주관련요인이 대학생의 음주문제행동 및 문제성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Korean J Health Promot* 2011;11(2):91-99.
29.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남녀 대학생의 음주 문제 위험요인: 사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2005;17(4):1003-1019.
30. 홍종필. 대학생의 술에대한 기대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31. Babor. TF, Higgins-Biddle. JC, Saunders. JB, Monterio. MG.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2nd e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32. Baer, J. S, M. M. Carey. Biases in the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of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993;54:54-60.
33. Gonzalez. VM, Collins. RL, Bradizza. CM Solitary and social heavy drinking, suicidal ideation, and drinking motives in underage college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2009;34:993-999.
34. King. AC, Bernardy. NC, Hauner. K. Stressful events, personality, and mood disturbance: Gender differences in alcoholics and problem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2003;28:171-187.
35. Kuntsche. E, Rehm. J, Gmel. G. Characteristics of binge drinkers in Europe. *Social Science & Medicine* 2004;59:13-127.
36. Kuther TL, Higgins-D'Alessandro A. Attitudinal and normative predictors of alcohol use by olde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Drug Education* 2003;33(1):71-90.
37. Nakajima. M, Kumar. S, Wittmers. L, Scott. MS, Absi. MA. Psychophysiological response to stress following alcohol intake in social drinkers who are at risk of hazardous drinking. *Biological Psychology* 2013;93:9-16.
38.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The actual condition of drinking of drinking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Seoul: S&Y 2010.
39. Urbán. R, Kökönyei. G, Demetrovics. Z.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drinking motives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Addictive Behaviors* 2008;33:1344-1352.
40. Wechsler. H, Davenport. A, Dowdall. G, Moeykens. B, Castillo. S.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A national survey of students at 140 campus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4;272:1672-1677.